

나주시, 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운영 '고민'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시행사로부터 순차적 인수
가로등 LED 교체 비용 등
관리비 연 140억 적자 예상
어두운 밤길 시민 불안 속
市 부담늘어 재정악화 우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주시와 3개 시행사간 공공 시설물 인수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시행사로부터 도로와 교량, 가로등, 상·하수도, 신호등, 공원녹지 등 공공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등 13개 공공기관의 인수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해야 하는 나주시로서는 한해 130억~14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어 자칫 부실한 인수가 이뤄질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낭비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기관 지방세·법인세 감면조치 =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나주시 주수입원은 ▲이전기관의 법인지방소득세 ▲시장할 주민세 ▲이전기관 직원들의 급여 연발정산지방세 ▲개인들의 아파트 및 상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있다.

올해 한전 등 이전기관들의 법인지방소득세는 7억여원으로 추산되지만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나주시가 이전기관에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향후 5년간 100%(105억여원)와 3년간 50%(31억여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법인세도 3년간 100%(147억여원)와 2년간 50%(49억여원) 감면이 이뤄진다.

여기에 버스노선 적자보존으로 연간 7억원을 비롯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 구입비에 대한 이차지원으로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 등 다양한 지원금이 함께 이뤄진다.

이를 감안하면 주 수입은 '시장할 주민세' 13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혁신도시 전체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140억~150억원 가운데 13억여원을 빼면 130억~140억원을 시 재정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의 심장부인 한국전력이 위치한 혁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의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을 3개 시행사로부터 인수하기로 했으나 관리비용 적자가 한해 130억~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발전력거래소와 빛가람로의 가로등 절반 이상이 꺼져있다.

신도시 도로변에는 최첨단 '에너지 밸리'와 웬지 어울리지 않는 'CDM'(메탈형 방전등) 가로등 279개가 불을 밝히고 있다. 시는 시행사에서 가로등을 인수받자마자 다시 2020년까지 279개 모두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안을 짜야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등기구를 2015년 60%, 2017년 80%, 2020년 100% 등 단계별 LED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30여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해 혁신도시 건설기간 동안 시가 시행사와 소통이 부족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경우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 당시 시행사에 LED등으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미 자재를 구입한 상태여서 바꿀 수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혁신도시 건설로 수천억원을 벌어가던 시행사가 조금만 돈을 더 쓰면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인수 매뉴얼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는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의 가로등 중 절반 정도만 가동(적용)하거나 밤 1시까지 조기 소등해 왔다.

이에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 거리가 너무 어두워 당장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올 1월부터 발생하는 전기세(월 1억원 예상)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며 전기세를 먼저 인수받았다. 이는 일몰에서 일출까지 혁신도시에 가로등 전체를 점등해 밝게 비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자가 혁신도시를 찾은 지난 26일 밤, 거리는 예전과 변함없이 캄캄했다. 전력거래소와 빛가람로는 절반 이상의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호수공원 순환도로 일부 구간은 전체가 소등돼 암흑 그 자체였다.

◇실개천은 철재 덮개로 덮어버려=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실개천도 인수 후 시의 예산 소요가 우려되는 곳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중심 상가를 가로질러 호수공원까지 설치된 실개천

은 설계와 달리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육중한 철재로 덮여져 있다.

이에 실개천을 따라 상가를 건축중인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시행사에 상권에 지장이 있다며 설계를 당초대로 변경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실개천은 설계상 물 순환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도로관리 소관인 건설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건설과에서 점검 대상은 교량 비파괴 검사, 도로표면채취, 땅속 관로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항목들로서 용역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시 관계자들은 예전에 남양 신도시와 세종시를 견학하면서 담당자들로부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을 듣고 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인사에 의해 새로 꾸려진 건설과는 이러한 조언을 무시하고 예산 절약을 이유로 용역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며 하자발생을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혁신도시 인수에 앞서 관심을 두고 점검할 사항은 이번이 아니다.

한참 부족한 건립비를 비추는 안전등과 색이 바래버린 어린이 보호구역의 컬러 아스콘 등은 시와 시행사간 인수·인계 점검에서 누락되면 모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혁신도시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철저한 점검을 거쳐 하자보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인수에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손철기기자 ykson@

나주 문예회관 시민 문화공간 자리매김

CGV와 영화 상영 1년 연장 협약

나주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15일부터 개봉영화를 상영한 이후 개봉작 270편을 상영, 누적관객 2만 8951명을 기록했다. 영화 관객이 평균 회당 107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국내 최대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와 지난 22일 영화상영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관 운영과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체결사항과 변동 없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CGV는 최신 개봉작을 연 120일 범위

내에서 매일 주말(토·일·공휴일 포함)에 상영하고 ▲티켓가격은 개봉작 기준으로 5000원 ▲지역시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기당 1회 무료 영화 상영을 진행한다.

앞서 나주 문화예술회관은 CGV와 지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개봉작 영화상영을 시범운영한 후 2014년 의사교체작업과 함께 정식 협약을 체결해 주말과 공휴일에 개봉영화를 상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개봉작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개봉작을 관람할 수 있도록 CGV와 개봉영화 동시상영 협약을 연장했다"며 "시민들의 향과 변동 없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CGV는 최신 개봉작을 연 120일 범위

나주학사 입학생 40명 모집...내달 10일까지

나주시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지자체 공공 기숙사내 '나주학사'(사진) 입학생 40명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8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나주학사에 입학하는 조건은 ▲공고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부형이 나주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족의 학생으로서 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서 선발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나주시, 고흥군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 사업의 하나로 서울소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와 면학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개관했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준공돼 총 382명(192실)을 수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토지를 대여하고, 8개 지자체가 각 20억원씩을 투자했다.

나주학사는 2인용 원통형태로 공부방과 샤워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부방은 사생활 보호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숙사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학생들은 12만원 내외의 최소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 공무원·시민 헌혈 통한 사랑나눔

나주시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단체, 시민들이 헌혈을 통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나주시 보건소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시 산하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사진)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헌혈에



대한 수혈은 오직 건강한 사람의 헌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헌혈인구의 감소와 헌혈 기피로 응급환자에 대한 수혈용 수급까지 부족한 실정에서 동참해 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1636 결과 믿음소망 알하세요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분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최대 5년

연금리: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